

이호철의 『남녘 사람 북녘 사람』론

— ‘한살림 통일론’의 소설적 재현

공 종 구*

요약

이호철의 문학은 분단을 축으로 연결되는 뫼비우스의 띠와 같은 형국을 이루고 있다. 시종일관 분단을 원체험으로 동원하는 작가답게 이호철은 통일에 대한 현실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고민이나 통찰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살림 통일론」과 『남녘 사람 북녘 사람』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텍스트이다. 통일에 대한 현실적인 방법론에 대한 이호철의 고민이나 통찰을 집약한 글이 「한살림 통일론」이고 그러한 통일론을 소설적으로 재현한 연작 소설집이 바로 『남녘 사람 북녘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호철의 통일론을 집약하고 있는 「한살림 통일론」의 핵심은 민족 동질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이다. ‘한살림 통일론’의 소설적 재현인 『남녘 사람 북녘 사람』에서는 한살림 통일론의 문제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선명한 이분법적 도식의 인물 배치를 동원하고 있다. 통일과 관련하여 이호철이 가장 경계해야 할 부정적인 대상으로 타자화하는 인물의 원형은 박천옥이나 최상호 선생과 같은 유형이다. 그 두 사람은 사회주의 체제 건설기의 북한 사회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던 유형으로 선형적인 이념이나 상투적인 관념을 자동인형처럼 반복하는 인물들이다. 그 반면, 호의적인 서술 시각에 의해 긍정적인 대상으로 초점화되는 인물은 한국전쟁 직전에 월남한 전상동 선배에게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는 유형이다. 전상동 선배는 자신의 분명한 중심은 확고하게 유지하면서도 그 것에 기계적으로 집착하지 않는 개성과 자유의지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시종일관 조건 없는 만남과 정분을 강조하는 한살림 통일론은 너무나도 소박 단순하며 느슨하여 하나의 담론으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체계나 밀도조차도 부족

* 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해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경험의 직접성'에서 우러나오는 무게와 깊이를 지닌 것이라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역설의 힘을 지닌다.

주제어: 민족 동질성, 선험적 이념, 상투적인 관념, 한살림 통일론, 개성과 자유의 지, 한국전쟁, 분단, 관료주의 체제

목차

1. 들어가는 글
2. '한살림 통일론'의 소설적 재현
3. 대위법적인 구도의 인물 배치를 통한 바람직한 인간형 제시
4. 적대적 타자로서의 선험적 이념과 관료주의 체제의 경직성
5. 나오는 글

1. 들어가는 글

‘탈향에서 ‘귀향까지. 이호철의 문학적 정체성을 압축하고 있는 명제이다. 작가 자신의 진술을 발원지로 하고 있는 이 명제는 보편적인 설득력을 확보하면서 이호철의 문학을 규정하는 키워드로 확고한 지분을 인정받고 있다. 실제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겨울, 이호철은 혈혈단신 19살의 어린 나이에 원산향 부두에서 LST를 타고 부산항 제 1부두에 몸을 부린다. 이후 제3부두 노동자, 초장동의 제면소 직공, 동래 온천장의 미군 정보기관인 극동고문단사령부(JACK 경비원¹⁾)의 신산을 거친 후 「탈향」(『문학예술』, 1955.7)으로 등단한 이호철은 월남민 의식이나 피난민 의식을 서사의 원천으로 동원하는 많은 작품들을 발표하면서 1960년대의 한 경향을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를 잡게 된다.

1) 이 부대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게 된 전후 사정에 대해서는 이호철, 「일년 동안의 변화 폭」, 『문단골 사람들』, 프리미엄북스, 1997, 43-52면 참조.

“이호철에게 있어서 ‘분단’이란 단순한 지정학적 구획이 아니라 탈향자로서의 삶과 생활을 규정하는 근원적 질곡이자 상처의 원천이었다”²⁾라는 지적처럼 분단이야말로 이호철을 작가의 길로 나서게 만든 결정적인 동인이었다. “제가 근 50년간 줄곧 써 온 제 작품의 총량은 이렇게 어린 나이로 단신 고향에서 떠나온 제가, 마음속 깊이 망향(望鄕)을 깔고 이 남쪽 세상에 적응해 오는 과정이었으며, 유년기를 일본의 식민지 상태 속에서 자라, 1945년 이후 5년간 초기의 북한 체제 속에 살다가 나온 사람 눈에 비친 남쪽 세상에 대한 비아냥거림이었습니다”³⁾라는 자신의 술회는 그러한 판단의 설득력을 담보하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그의 작품은 한마디로 ‘소설로 쓴 망향기’ 또는 ‘남한에서의 존재론적 뿌리내리기의 소설적 기록’으로 압축할 수 있다.

작가의 회고에 의하면 이호철은 막심 고리키의 『3인의 추억』이라는 일본어 문고본 한 권을 뒷주머니에 꽂고 나서면서 한 일주일 정도면 다시 돌아오겠지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섰다고 한다.⁴⁾ 하지만 1950년 19살의 나이에 한번 떠난 원산의 고향 땅은 2016년 84세의 나이로 유명을 달리는 순간까지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하는 통한의 장소가 되고 말았다. 평소 그가 “서울서 불과 전주나 영동 가기만한 거리, 220km, 자동차로 세 시간이면 너끈히 가 닿을”⁵⁾ 지척의 거리에 있는 고향 땅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회한과 울분을 여러 자리에서 피력했던 것도 그러한 부조리한 상황을 얼마나 민감하게 의식하고 있었는가를 여실하게 증명하고 있다. 더불어 “아직 분단이라는 체제 굴레 속에 매인 몸으로는 이 땅의 모든 문학, 시, 소설은 근본적으로 절름발이일 수밖에 없고.....분단 극복에의 진정한 자기 자각 없이는 민족 해방, 인간 해방은 불가능하다”⁶⁾는

2) 강진호, 「원용의 삶과 꿈은 지향의 문학」, 강진호 엮음, 『이호철』, 글누림, 2010, 28면.

3) 이호철, 「한국: 나누어진 나라, 나누어진 문학」, 『이호철의 쓴소리』, 우리교육, 2004, 83-84면.

4) 이호철, 「나의 문학생활 반세기: 분단과 그 극복, 그리고 통일」, 『이호철의 쓴소리』, 위의 책, 136면 참조.

5) 이호철, 「꿈인가 생시인가 새로운 시작」, 『남·북한 반세기』, 이소북, 2003, 165면.

주장이나 “나는 아직도 월남한 사람 혹은 피난민이라는 의식을 떨쳐버리지 않고 있고, 되도록 그 의식을 더 어거지스럽게 고집함으로써 이 부박한 시대를 내 나름대로 감당해가는 지표로 삼고자 합니다”⁷⁾라는 다짐 또한 방향의 간절한 그리움으로 인한 통한의 고통이 얼마나 절절한지 생생하게 증거한다. 남한에서의 자신의 삶을 ‘임시 가건물’⁸⁾에 비유하면서 남북한이 통일이 되어 고향 땅을 밟기를 간절하게 회구했던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녘사람 북녘사람』 연작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긴장과 이완, 부침과 명멸을 반복하며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동안 분단 상황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이념이나 체제, 언어나 문화 등에서 적지 않은 이질적인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남북한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나 방법론에 대한 이호철의 고민이나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판단이나 해석은 “제목에 ‘남녘’과 ‘북녘’으로 각각 다르게 표기한 것은 나름대로의 작가 의도였음을 밝혀둔다”⁹⁾라는 작가의 말을 통해서도 설득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호철의 분단소설 지형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나 위상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그 동안 본격적인 논의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다. 작품 해설 수준의 글들이 몇 편 산견될 뿐이다. 그런 성격의 대표적인 글들로는 임규찬, 「작가의 체험과 소설적 자아」, 이호규, 「다른 이유, 하나여야 할 까닭, 하나일 수 있는 조건」, 신승엽, 「인물 탐구의 객관성과 민중성」¹⁰⁾ 등을 들 수 있다. 이 글들은 주로 인물들의 의미망

6) 이호철, 「나의 문학생활 반세기: 분단과 그 극복, 그리고 통일」, 『이호철의 쓴소리』, 146면.

7) 이호철, 「한 문우에게」, 『이호철의 쓴소리』, 앞의 책, 74-75면.

8) 위의 글, 75면.

9) 이호철, 「작가의 말」, 『남녘 사람 북녘 사람』, 민음사, 2007, 349면.

10) 임규찬, 「작가의 체험과 소설적 자아」, 『이호철 문학선집』6, 국학자료원, 2001. 이호규, 「다른 이유, 하나여야 할 까닭, 하나일 수 있는 조건」, 『이호철 문학선집』7, 국학자료원, 2001. 신승엽, 「인물 탐구의 객관성과 민중성」, 『창작과 비평』, 1996.9.

탐색에 공력을 들이느라 상대적으로 “이호철의 전 생애를 한결같이 지배한 화두이자 실존의 주제”¹¹⁾였던 분단 극복과 관련된 고민이나 해법의 천착에는 소홀하다는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아 보인다. 이 글의 문제의식이 출발하는 지점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이 글의 목적은 이 작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남북한이 견지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나 방법에 대한 이호철의 고민이나 해법을 탐색하고 천착하기 위한 것이다.

2. ‘한살림 통일론’의 소설적 재현

『남녘 사람 북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된 작품집은 2권이다. 한 권은 1996년 프리미엄 북스에서 그리고 다른 한 권은 2002년 민음사에서 출판한 것이다. 그 두 작품집 모두 「작가의 말」에서 ‘기왕에 산발적으로 발표되었던 것과 본 작품집에 실린 것에 언어 구사 등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본 작품집 것이 정본임을 덧붙여둔다’라고 밝히고 있는데다 실제 그 두 판본 사이에는 수록 작품의 순서만 다를 뿐 차이가 없어 어느 것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도 차이는 없다. 하지만 프리미엄 북스판에 비해 6년 뒤에 다시 출판한 민음사판에는 「세 원형 소묘」라는 단편이 추가로 수록되어 있어서 민음사 판본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게 온당할 듯싶다.

「세 원형 소묘」를 포함하여 『남녘 사람 북녘 사람』에 수록된 작품은 모두 다섯 편이다. 구체적인 서지 사항을 밝히면 「세 원형 소묘」(『실천문학』, 1983. 12), 「남에서 온 사람들」(『창작과 비평』, 1984. 9), 「칠흑 어둠속 질주」(『창작과 비평』, 1985. 3), 「변혁 속의 사람들」(『월간경향』, 1987. 9), 「남녘 사람 북녘 사람」이다.

11) 강진호 앞의 책, 5면.

『남녘사람 북녘사람』……의 내용을 요약하면, 북한에서 고3의 어린 학생으로 6·25전쟁에 동원되었다가 남한군에 포로로 잡혀 복상하던 중의 몇 가지 삽화가 중심입니다. 물론 그 당시의 제 체험이었지만 중요한 장면이나 등장인물은 픽션입니다. 다시 말해 그냥 평판적(平板的)인 제 체험의 나열만은 아니고, 이 작품에는 반세기를 지나 오늘까지도 관통하고 있는 남북 문제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작가의 메시지가 들어 있다고 저는 자처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끝머리에 이르러서는 흔한 ‘이념’이라거나 ‘체제’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됨’이라는 말입니다.¹²⁾

이호철의 이 글은 『남녘 사람 북녘 사람』의 문제의식에 접근하는 데 아주 유용한 단서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호철의 거의 대부분의 다른 분단 소설들처럼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을 핵심 질료로 동원하고 있는 이 작품이 직접적인 진술의 형태로 전달하고 있는 문제의식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이 작품에는 남북 문제에 대한 자신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메시지의 핵심은 이념이나 체제가 아니라 ‘사람됨’이라는 점이다. 통일이나 남북 문제에 접근하는 현실적인 방법론으로 이념이나 체제보다는 사람을 내세웠던 이호철의 그러한 입장이나 생각은 그의 글쓰기 전반에 걸쳐 수시로 등장한다. 그리고 그러한 진술을 전달하는 담론의 구조나 문법은 에두르는 법이 없이 곧장 정곡을 돌파하거나 직필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앞으로 벌어질 우리 남북관계 속에서도 ‘효율’이라거나 ‘전략’이라거나 그런 것이 주종이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바로 ‘진정한 마음’, 저 테레사 수녀의 맑고 투명한 마음에 안받침된 참된 ‘성심’이어야 한다”, “내가 이 자리에서 거듭 강조하는 그 ‘진정한 마음’, 투명한 ‘성심’은 그런 종류의 효율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그 어떤 사람살이의 본원적 영역”¹³⁾등과 같은 진술들은 그러한 판단이 조금도 과장이 아닌

12) 이호철, 「한국: 나누어진 나라, 나누어진 문학」, 『이호철의 쓴소리』, 앞의 책, 84면.

을 선명하게 증거한다. 간명직재한 진술을 통해 통일이나 남북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이호철의 이러한 방식은 피난민 의식을 작가적 정체성으로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하나의 생각이 다른 하나의 생각을 계속 자극하고 촉발하는 해체의 유희와도 같은 중층적인 사유를 추구하면서 최종적인 기의는 유보하거나 유예하는 열린 변증법의 진술 방식을 동원하는 최인훈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한편 남북 문제나 통일에 접근하는 방법론이나 문제의식에 대해 산발적인 각개약진의 방식으로 발신하던 이호철의 생각이나 입장은 「한살림 통일론」이라는 산문을 통해 집약된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그런 오직 하나의 ‘전략개념’쪽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우리의 본원적 민족 정서, 역시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한 민족이다, 한 핏줄이다, 같은 강산에 살고 있다는, 같은 말을 쓴다는,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김치를 즐긴다는, 그렇게 우리 모두가 조상 대대로 익숙해 있는 본래적인 우리 삶의 터로 일단 돌아와 보자, 이겁니다.

바로 이런 우리 본래의 민족 정서로, 사사로운 만남에서도 그 만남만큼의 정분이 축적되는, 그리워지는, 처음에는 데면데면하고 어색버섯하지만 끝내는 같이 지낸 만큼으로 허심탄회한 인정이 오고 가면서 정분이 쌓여지는 것, 이것이 대체 뭐겠습니까. **통일이라는 것도 바로 이런 연장에서, 이런 것에서부터 싹이 터서 열매로 맺는 것이 통일이지, 어느 쪽이 더 잘났다, 어느 쪽은 못났다, 어디가 ‘이긴다’ 어디가 ‘졌다’ ‘옳다’ ‘그르다’** 하는 쪽으로만 마음을 쓰고 허발하고 달려들 것은 없다, 이거지요.¹⁴⁾

이호철의 통일론을 집약하고 있는 ‘한살림 통일론’의 근간을 이루는 대목이다. 반복 강박의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살림 통일론에서 시종일

13) 이호철, 「1998년 9박 10일간의 방북기」, 『남·북한 반세기』, 앞의 책, 56-57면.

14) 이호철, 「한살림 통일론」, 『이호철의 한 살림 통일론』, 정우사, 1999, 103-104면.

관 이호철이 강조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보다 먼저 민족 동질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급선무라는 점이다. 그 작업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과제로 힘주어 강조하는 것은 남북한의 구성원들끼리 자주 만나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분을 쌓으라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의 구성원들이 자연스러운 교류나 만남을 통해 정분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보여주어야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이호철이 내세우는 것은 상호 신뢰와 우의를 확인하게 하는 진실하고도 투명한 마음과 태도이다.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바탕으로 하는 만남들이 축적되다 보면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 분단의 질곡으로 인한 단절과 적대로 인해 막연한 짐작의 차원에서만 상상해왔던 민족 동질성을 생생한 실감의 차원에서 확인하게 되고 그러한 확인 작업들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통일 또한 가능성의 차원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관성적으로 반복해온 이념이나 체제의 차이와 같은 정치 논리의 전략 개념을 앞세워서는 통일은 백년하청이라는 것이다.

치밀한 논리나 정치한 방법론과는 대척적인 지점을 발신지로 하는 한 살림 통일론에서 “이호철 문학의 본성과 같은 것이며, 나아가 그의 소설만의 독특한 성격을 부여”¹⁵⁾하는 낭만주의와 친진난만성의 흔적을 발견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시종일관 반복강박의 수준에서 조건 없는 만남과 정분을 강조하는 그의 주장은 너무나도 소박 단순하며 느슨하여 하나의 담론으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체계나 밀도조차도 부족해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가 강조하는 본원적 민족 정서를 확인하는 실천인 남북이산 가족 상봉을 비롯한 각종 인적·물적 교류 사업이나 행사 또한 정치 논리와 연동되어 진행된다는 점에서 정치 논리와 본원적 민족 정서를 배타적인 관계로 설정하는 이 담론이 가지는 취약점은 너무나도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그의 통일론은 해방 이후 월남하기까지 5년 간 사회주의 체제가

15) 임규찬, 『편문집, '소시민', 그리고 '큰 산』, 『소시민』외, 동아출판사, 1996, 564면.

들어서는 북한에서의 경험과 1998년과 2000년 두 번에 걸쳐 북한을 방문한 경험 등 남북한의 체제를 모두 경험한 ‘경험의 직접성’에서 우리나라오는 무게와 깊이를 지닌 것이라는 점에서 무시할 수만은 없는 역설의 힘을 느끼게 한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남북문제나 통일에 접근하는 방법론으로서 이념이나 체제보다는 사람을 강조하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살림 통일론」이나 『남녘사람 북녘사람』은 간과할 수 없는 가족 친족성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남녘사람 북녘사람』은 한마디로 「한살림 통일론」의 소설적 재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비유적으로 말해 이 작품집에 수록된 다섯 편의 중단편들은 「한살림 통일론」이라는 항성 주위를 바장이는 행성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섯 행성들은 두 가지 일정한 법칙성의 궤도를 공유하면서 반복적으로 변주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하나는 서사를 추동하는 주요 인물들을 선명한 대위법적인 구도를 통해서 배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와 연동된 것으로 북한 사회의 선형적인 이념과 관료주의 체제의 억압과 경직성을 부정적인 타자로 초점화하는 것이다.

3. 대위법적인 구도의 인물 배치를 통한 바람직한 인간형 제시

남북 문제의 해결이나 통일을 위한 현실적인 해법으로 이념이나 체제의 차이나 우월성을 따지기에 앞서 무엇보다 먼저 남과 북의 사람들이 자주 만나 인간적인 교감을 주고받는 일이 급선무라는 한살림 통일론의 소설적 재현인 『남녘 사람 북녘 사람』의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세 원형 소묘」는 주목을 요하는 작품이다. 더불어 민음사판에서 이 작품을 추가로 수록하게 된 동기를 짐작하게 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그 제목에서부터 암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작품은 『남녘 사람 북녘사람』의 문제의식의 원

형을 소략한 형태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대위법적인 구도의 인물 배치를 통해서 문제의식을 반영하고자 하는 서사의 문법이나 양상은 「세 원형 소묘」에서부터 선명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그 무렵 과도기적 체제형 학생으로서 박천옥을 들먹거리자니까, 역시 과도기적 체제형 선생 격인 최상호 선생을 들먹거리지 않을 수 없어, 몇 마디 덧붙인 셈이거니와, 아무튼 이 무렵엔 박천옥이 동료 학생들 사이에서 공포의 대상으로 군림했듯이, 최상호 선생도 교직원들 사이에서 거의 공포의 대상으로 군림하고 있었던 것이다.....**흔하게 들어온 선전선동 문구나 무더기 관념어들, 구체적인 실체를 지지하는 것은 없이 거의 판에 박힌 일정한 억양만 장장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이어지는 그런 보고와는 너무나도 판이하였다. 아아, 우린 그런 회합에 얼마나 질리고 신물나 있었던가.**(「세 원형 소묘」, 14-28면)

그런데 지금 전상동 선배는, 남쪽에서의 국대안 반대의 배경과 원인, 그리고 경위를 어디까지나 **실제 정황에다 초점을 맞춰 차근차근 나직나직 풀어나가는 거였다. 그 당시 열성분자에게서 흔하게 보던 노상 열에 떠서 돌아가며 우쭐해서 잘난 척하는, 신물나는 작태나 판에 박힌 상투적 태는 전혀 없었다.**(「세 원형 소묘」, 28면)

한살림 통일론을 비롯한 많은 글들에서 이호철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가장 경계의 대상으로 타자화했던 부정적인 대상은 인간을 억압하는 추상적인 이념의 맹목성과 경직성이었다. “더구나 특정 이념에 입각한 거창한 ‘프로그램’ 같은 것, 더 나아가 그것의 시스템화, 그것은 바로 비극의 시작이다”¹⁶⁾라는 진술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바와 같이 이호철에게 이념이란 그것이 아무리 선의와 정의로 포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

16) 이호철, 「촌단(寸斷)당한 삶의 현장」, 『이호철 문학앨범』, 웅진출판, 1993, 135면.

소한의 ‘인간적인 온기’, ‘사람살이의 본원적인 활달함과 자연스러움’, ‘인간 천성에 대한 이해’¹⁷⁾와 같은 소중한 가치들이 들어설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봉쇄해버리는 억압과 폭력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념에 대한 이호철의 그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해방 이후 북한 사회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몸소 겪은 경험¹⁸⁾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설득력을 지닌다. 이념 일반이 자유로울 수 없는 한계에 대한 이호철의 평소 문제의식이나 부정적 인식과 관련하여 박천옥과 최상호 선생은 주목을 요한다. 이 두 인물은 이호철의 작가적 대리인으로 기능하는 ‘나’의 서술 시각에 의해 그러한 문제의식이나 부정적 인식을 체화한 인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문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성립되는 과도기적 체제의 인물로 기능하는 박천옥과 최상호 선생은 구체적인 실체를 지시하는 것은 없으면서 요란하기만 할 뿐인 상투적인 선전선동 문구나 생경한 관념어들로 조잡한 보고를 기계적으로 반복한다. 한마디로 이 두 인물은 구체적인 현실과는 상관없이 선형적으로 주입된 사회주의 체제의 추상적인 이념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인물들이다. 반면 그들의 카운터 파트로 기능하는 전상동 선배는 선형적인 추상적 이념이나 관념을 통해 현실을 도식적으로 재단하지 않고 그것들의 물질적인 토대로 작용하는 구체적인 현실에 밀착되어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는 인물로 기능한다. 극적일 정도로 선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 세 사람에 대한 ‘나’의 서술 태도에서 박천옥과 최상호 선생은 비판과 부정의 대상으로 타자화되는 반면 전상동 선배는 우호와 긍정의 대상으로 초점화되고 있다.

이호철의 작가적 대리인으로 기능하는 나의 서술 태도를 통해 부정과 비판의 대상으로 초점화되고 있는 박천옥과 최상호와 같은 캐릭터들은 해방 직후 사회주의 체제를 수립해나가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일 정도의

17) 위의 글.

18) 위의 글. 146-151면 참조.

정치 과잉의 정동이 과도하게 분출되던 북한 사회¹⁹⁾를 배경으로 탄생한 인물들이다. ‘독보회, 학습회, 특히 비판회 같은 것은 지긋지긋하게만 느끼지 않았던가. 쫓기대회니 열성자대회니 보고대회니 하는 것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농땡이 치려고만 하는 축에 들지 않았던가(「남에서 온 사람들」, 40면)라는 나의 회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해방 직후 각종 군중 집회나 보고 대회가 일상적으로 반복되던 정치 과잉의 열기가 지배하던 북한 사회에서 박천옥이나 최상호와 같은 열성분자들은 특별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인물들이었다. 선협적인 이념이나 관념의 상투형을 자동인형처럼 기계적으로 반복하던 박천옥이나 최상호와 같은 인물들이 득세하고 발호하던 해방 직후의 사회주의 체제 건설기의 북한 사회의 실상에 대해 이호철은 “말이 좋아서 ‘혁명적 변화’이지,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 다시 그때를 돌아보면,..... 기본적인 문화수준이 아직 낮을 때의 그러저러한 ‘혁명적 형태’는 명실공히 광기의 분출이고, 제대로 양식 있는 사람에게는 생지옥이나 다름없었다.”²⁰⁾라는 높은 수준의 부정적인 수사를 동원하여 단호하게 비판하고 있다. 더욱이 용광로와도 같이 들끓는 입체적인 욕망으로 결코 단순할 수 없는 인간의 존재론적 조건이나 끊임없이 변전하는 구체적인 사회의 실상보다는 선협적인 이념이나 상투적인 구호를 더 선호하는 북한 사회의 당시 오류나 한계가 이호철이 보기에 지금까지도 이월 지속되고 있으며, 그러한 오류나 한계가 통일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현실이나 당면 문제에 접근하고 해석하는 문법이나 방식, 그리고 인품이나 교양에서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는 대위법적인 구도의 인물 배치를 통해 통일의 바람직한 방법론을 둘러싼 문제의식을 반영하고자 하는 「세 원형 소묘」에서의 서사 양상이나 문법은 이후의 다른 네 작

19) 해방 직후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해나가는 과정의 북한 사회의 실상에 대해서는 김성보, 『북한의 역사 1: 건국과 인민민주주의의 경험 1945-1960』, 역사비평사, 2019 참조.

20) 이호철, 「2000년 방북기」, 『남·북한 반세기』, 앞의 책, 110면.

품들에서도 반복적인 변주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사람 됨됨이나 교양에서 사뭇 대조적인 남로당 출신의 두 의용군인 갈승환과 김석조의 대비를 통해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남에서 온 사람들」, 부대원들의 안위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위신의 과시에만 관심을 보이는 관료주의적 허세와 권위주의로 무장된 총대장과 자신의 신념에 대한 헌신적인 믿음으로 참전한 후 전사하는 부산수산대학교 출신의 의용군인 장서경의 대위법적인 구도를 동원하는 「칠후 어둠 속 질주」, 해방 직후 북한에서 시행된 토지개혁 당시 토지 분배 선정위원 활동을 기점으로 문중의 촉망을 한 몸에만 받던 육친의 아저씨에서 문중의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관동집 풍용이의 존재론적 단절에 가까운 급격한 변모를 통해 이상적인 인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변혁 속의 사람들」, 북한 포로들을 인솔하는 과정에서 상황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는 남한의 헌병들과 보신주의적 처세와 관료주의적 처신으로 부하들에게서마저도 냉소와 경멸의 대상으로 희화화되는 인민군 군관의 대립쌍을 동원하는 「남녘 사람 북녘 사람」 등 대위법적인 인물 구도의 배치를 통해 바람직한 통일의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는 서사의 문법이나 양상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피비우스의 띠처럼 서로 맞물리면서 돌아가는 다섯 편의 연작소설에 반복적인 변주를 보이면서 등장하는 부정적인 인물들 가운데 특히 갈승환 씨는 주목을 요한다. 남로당 당원으로 선협적인 이념이나 관념을 명분 삼은 상황논리에 재빠르게 편승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추구하거나 이해를 관철하는 데 영악한 갈승환 씨는 통일을 추구하고 모색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유형으로 이호철이 어떤 인물들을 암시하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리하여 갈승환 씨는 첫 인상부터 별로 질이 안 좋은 사람으로 이미 내 눈에는 벗어난 사람이었거니와」(「남에서 온 사람들」, 47면)라는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생래적인 거부감에 가까울 정도의 혐오의 정서를 노골적으로 투사하는 나의 서술 태도를 통하여 이호철은 남북한이 통일을 지향하거나 추구하

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인간상이나 방법론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이 내가 대한민국의 헌병이라는 직분에 있는 사람을 처음으로 대면했을 때의 정황이었다. 아니, 대한민국과의 첫 해후였다고 하는 게 더 옳겠다. 그리고 그 첫인상은 그다지 나쁘지 않은 것으로 여태 남아 있다. 내가 그때까지 오 년 동안 겪어본 노상 시끄럽고 서슬 푸르고 악악거리 대기만 하는 북쪽 체제와의 비교에서 우선 그렇다. 천양지차이가 있었다. 실은, 거기 북쪽에는 자연 자체로서의 백성, 민중이 아니라, 일정한 규격으로 문자로 노상 내려먹이는 몇몇 지식인 도당의 ‘인민’ 의식만이 회오리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남쪽에는 부티 나는 카키군복에다 선글라스며 송두리째 외국 것을 휘감고는 있었지만, 자연인 자체로서의 이 나라 민중이 어렵게 어렵게 일망정 여전히 그 모습 자체로서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남녘 사람 북녘 사람」, 255면)

그도 그럴 것이 그때까지 내가 살았던 이북 세상에서는 이런 경우에 닥쳐서 이런 언동을 내놓고 한다는 것은 거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당장 조직과 규율을 무시한 반동적 부르조아 행태로 혼쭐나게 비판을 당하게 된다. 이때도 나는 이북과는 다른 남쪽 세상의 개개적으로 활달한 자유로움을, 사람살이의 그 본원적인 신선함을 흘깃이나마 선망 섞어 볼 수 있었는데, 떠나기 전에 그 진남포 사람이 별 깊은 생각 없이 슬쩍 나한테 남긴 이 한마디는, 그 뒤의 나에게 엄청난 행운을 안겨다주었던 것이다. (「남녘 사람 북녘 사람」, 290-291면)

‘내가 그때까지 오 년 동안 겪어본 노상 시끄럽고 서슬 푸르고 악악거리 대기만 하는 북쪽 체제’, ‘거기 북쪽에는 자연 자체로서의 백성, 민중이 아니라, 일정한 규격으로 문자로 노상 내려먹이는 몇몇 지식인 도당의 ‘인민’ 의식만이 회오리’, ‘당장 조직과 규율을 무시한 반동적 부르조아 행태

로 혼쫌나게 비판을 당하게 된다.’ 등의 서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박천옥이나 최상호를 비롯하여 부정적인 대상으로 타자화되는 인물들은 자기동일성의 논리와 체계를 담론적 속성으로 하는 선협적 이념이나 관료주의 체제에 집착하는 과정에서 단독자로서의 고유한 정체성이나 활달한 개성을 상실하거나 억압하는 존재론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호철이 보기에 통일을 모색하고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했던 인간상들은 바로 북한의 체제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될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었다. 따라서 역으로 통일의 방법론과 관련하여 이호철이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제시하고자 했던 유형은 대한민국의 헌병들에게서 그 단초나 징후를 발견할 수 있었던, 선협적인 이념이나 체제에 구속되거나 위축되지 않고 자신들만의 고유한 정체성에 기초한 활달한 개성이나 자유의지를 자연스럽게 발휘하는 인물들이었다.

4. 적대적 타자로서의 선협적 이념과 관료주의 체제의 경직성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건설기에 5년 동안 북한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그 상황을 경험하고 목도한 이호철이 북한 체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한 것은 ‘인간’과 ‘이념’의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이었다. 모든 이념은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완벽하다 할지라도 아니 아름답고 완벽할수록 인간의 삶을 위한 수단이지 그 이상일 수도 없고 그 이상이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사회주의 체제를 수립해나가던 그 당시 북한에서의 이념은 이호철이 보기에 인간 위에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하고 지배하는 따라서 인간은 그 이념을 상전처럼 떠받드는 한갓 부수적인 존재에 불과했다. ‘1946년 중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소련 유학생 선발 과정에서의 고의적인 탈락 에피소드’²¹⁾로 미루어 짐작할 때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정이나 욕망을 억압하는 자기동일성의 기제를 작동원리로 하는 이념이나 체제에 대

해서는 생래적인 거부감을 지니고 있었을 정도로 이호철은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 성정이나 기질의 소유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성정이나 기질의 소유자였던 이호철에게 “다원성이 급속히 소멸하고 획일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획일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하나 둘 동심원의 바깥에서부터 제거”²²⁾되던 사회주의 체제 건설기의 북한 사회에서 강박적으로 강조되던 선협적인 이념이나 체제는 폭력이나 억압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없었다. 더불어 압도적인 규정력을 가지고서 북한 사회를 재단하다시피 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관료주의의 문화나 분위기도 또한 마찬가지였다.

“김석조 동무는 아직 노예 근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원으로서의 긍지와 자존심은커녕 기초 성품이 도무지. 그런 동무가 어떻게 당원까지 되었는지, 당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계급 적(敵)에 대한 최소한의 증오심도 안 서 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갈승환 씨는 힘주어 말했다.

“어떨까요? 당원으로서의 자존심과 긍지는 동무가 말하듯이 항상 그런 식으로 밖으로 더덕더덕 드러나 있어야만 할까요? 그래야만 자존심이고 긍지일까요?”

갈승환 씨는 순간 꿈틀하면서 자못 의외라는 듯이 나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동무처럼 당원으로서 늘 모범적이고 표준적으로 되려다가 보면 자칫 그런 형식적인 틀에 채여들어가지는 않을까요. 실례지만, 제가 보기에 동무는 벌써 그런 일정한 틀에 채여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남에서 온 사람들」64면)

21)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말에 대해서는 이호철, 「촌단당한 삶의 현장」, 앞의 글, 149-153면 참조.

22) 김성보, 앞의 책, 89면.

일 잘하고 잘 떠들고 잘 놀던 그렇게도 활달하던 풍용이는 온데간데없고 오직 사람을 어떤 선전 대상, 공작 대상 같은 것으로만 취급하는 것 같아 비린내부터 나고 지겨운 생각부터 들었다. 매사에 자연스럽지가 못하고 노는 데에도 꼭 선전이 끼어들어서 초를 찢고 맛대가리 없게 만들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그가 노상 지껄이는 소리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백 번 옳은 소리였지만, 그 옳은 소리들은 오로지 너무 옳기만 해서 옳게 느껴지기 전에 지겨워지기부터 하는 것은 웬일일까. (『변혁 속의 사람들』, 208면)

대위는 출발 직전, 인근 인민학교 운동장에서 한바탕 또 긴 연설을 하며 200여 장병을 진력나게 하였다.

“동무들은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이 야간행군 길이 어떤 길이나 하는 점을 가슴 깊이 명심하고 있을 줄 믿소. 모름지기 보람과 긍지와 영광으로서 가슴 깊이 담아, 위대한 조국전쟁에서 파쇼 독일군을 무찔러 쏘비에트 조국의 위력을 만방에 떨친 위대한 스탈린 대원수 영도하의 위대한 쏘비에트 붉은 군대의 모범을 춘시나마 잇는 일 없이.....”

위대한 위대한 하고 판에 박인 허두로 시작된 그의 연설은 이 판국에 장장 30분이나 이어졌다. (『변혁 속의 사람들』, 164-165면)

“특정 이념에 입각한 거창한 ‘프로그램’ 같은 것, 더 나아가 그것의 시스템화, 그것은 바로 비극의 시작이다”²³⁾라는 주장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바와 같이 통일을 추구하고 모색하는 과정에서 남과 북이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이호철이 지적했던 것은 구체적인 현실과는 유리 절연된 채 선택적인 이념이나 상투적인 관념을 기계적으로 우선시하는 이념과 체제의 경직성이었다. 그것이 문제인 것은 어떤 이념이나 체제이든 그 자체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구체적인 현실과의 조응 속에서 속도나

23) 이호철, 『촌단당한 삶의 현장』, 앞의 글, 135면.

강도를 조절하는 탄력적인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선협적인 이념이나 체제는 바로 그러한 유연성이 태부족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현실의 열린 가능성을 차단하고 방해하는 질곡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상황논리에 편승하여 얼치기 남로당 당원의 지위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신변을 보호하는 데 재바른 갈승환 씨가 강조하는 당원으로서 구비해야 할 마땅한 자격 요건이나 자질에 관한 논리, 순박하고 다정다감한 성격과 심성에 바탕한 언행으로 문중의 촉망을 한 몸에 받던 인물에서 토지개혁의 토지분배 선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부터 사무적이고 고압적인 언동을 일삼는 권위적인 관료로 표변하는 풍용이 아저씨의 연설, 그리고 명재경각의 위태로운 전선에 소모품으로 투입되는 부하 병사들에 대한 애정과 연민보다는 자신의 지위를 확인하는 데만 골몰하는 총대장의 연설들은 모두 한결같이 그러한 선협적인 이념의 경직성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아주 건조한 기계적인 형식논리에 매몰되어 따뜻한 인간미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의 논리나 연설에 대해 나가 ‘그 옳은 소리들은 오로지 너무 옳기만 해서 옳게 느껴지기 전에 지겨워지기부터 하는 것은 웬일일까’, ‘위대한 위대한 하고 판에 박인 허두로 시작된 그의 연설’, ‘실례지만, 제가 보기에 동무는 벌써 그런 일정한 틀에 끼여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와 같이 아주 높은 강도의 부정적인 정서나 태도를 반영하는 표현을 동원하여 서술하는 것을 보더라도 구체적인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이 무매개적으로 작동하는 선협적인 이념이나 상투적인 관념에 대해 이호철이 어느 정도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었는가를 확인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통일의 방법론과 관련하여 이호철이 반복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집요하게 반복하는 선협적인 이념이나 상투적인 연설에 대한 비판과 부정은 자연스럽게 ‘공동체 행위를 합리적으로 조정된 이익사회 행위로 바꾸는 특수한 수단으로서의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권력집단의 물리적 집행도구로 기능’²⁴⁾하는 북한 사회의 관료주의의 폐해와 행태에 대한 비판과 부정으로 이어진다.

그러자 금방 전깃불들이 꺼지는 속에 멧대가리없게 생긴 커다란 양철 깡통 하나도 흘끗 눈에 띄었다. 그들은 그렇게 가마니때기 위에서 전깃불 네댓을 켜놓은 채 옆 깡통에다 일을 보아가면서 술들을 마시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때 ‘총대장’인 그 멀경하게 생긴 대위가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화차 아래 폼으로 내려서려고 하며, 그러나 조금 어울리지 않게 거들먹거리듯이(「칠후 어둠 속 질주」, 130면)

그렇다면 여관 거리라고 할 만한 것이 따로 없는 소읍 거리라 응당 각 소대장(군관)들은 각기 그 소대원들과 함께 한 여관에 묵으면서 관리 책임을 맡도록 조치해야 마땅했음에도 그것이 아니었다. 저희들 군관들은 조금 고지 쪽의 전망이 좋은 아담한 여관 하나에 들지 않는가. 그러고는 각 소대별로 소위 부소대장 격인 우리 고3 출신들에게만 몽땅 관리 책임을 떠맡겼다. (「칠후 어둠 속 질주」, 152면)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게 웬일인가. 풍용이에게서는 사사로운 것이 사그리 없어져 있었다. 동시에 그에게서 늘 감돌던 활달한 매력도 일거에 거저말처럼 사그리 없어져 있었다. 그것은 1945년 늦가을 이웃 군에서 주관하던 보름짜리 간부양성소를 다녀오며부터 이미 그런 기미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토지개혁을 겪으면서 부쩍 더 심해졌다. 그전에는 못 보던, 사람을 내려다보며 군림하는 듯한 거드럭거리는 티가 붙어 있었고, 허튼 소리거나 떠들며 놀던 것이 언제 적 얘기였는가 싶게 사람이 여간 꺾고 꺾고 까다로워져 있지가 않았다. (「변혁 속의 사람들」, 206면)

“모든 것이 쉽사리 시스템으로 수렴되고 시스템 속에 융어매어져 파묻혀 버릴 때, 최소한의 ‘인간적 온기’, ‘사람살이의 본원적인 활달함과 자연스러움’, ‘인간 천성에 대한 이해’ 같은 것이 설 자리²⁴⁾를 없게 만든다는

24) 홍일립, 『국가의 딜레마』, 사무사책방, 2021, 326-327면.

주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인간적 온기’, ‘사람살이의 본원적인 활달함과 자연스러움’, ‘인간 천성에 대한 이해’ 같은 요소들은 한 살림통 일론을 비롯하여 통일에 관한 방법론을 설파하는 여러 자리에서 이호철이 반복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강조했던 사항이다. 오랜 세월 분단체제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갈수록 희미해져가는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이야말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태도나 정서라는 판단에서였다. 계급을 축으로 한 수직적인 위계에 기초한 특권의식에 오염된 총대장을 정점으로 한 군관들이나 사무적이고 권위적인 당 관료로 표현하는 풍용이가 나의 비판과 부정의 대상으로 초점화될 수밖에 없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이다.

먼저 문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변 역에서 출발하여 고성을 거쳐 울진을 목적지로 출발한 동해선 군용열차 안에서 총대장을 비롯한 소대장들 급의 군관들은 술자리에 도취되어 자신들이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대원들의 안위는 오불관연 관심 밖이다. 자신들의 특권적인 지위를 확인하고 구가하는 데만 골몰하는 관료주의적 행태와 처신에 익숙해진 이들에게 생때와도 같이 고귀한 200여 명 부대원들의 목숨은 인수인계 대상의 물품 목록에 불과한 사물화된 존재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실제로 남한의 의용군을 포함한 5개 소대 200여명의 비정규 부대원으로 편성된 신병대대는 당시 포항과 영덕 근처의 전선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하던 북한의 최일선 정예부대들이 후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투입된 소모품과 같은 존재들이었다. 또한 순박한 농민에서 권위적인 하급 관리로 바뀌는 과정에서 존재론적 단절에 가까운 심성과 태도의 변화를 드러내는 풍용이에게 북한 농민들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먹거리를 생산하는 소중한 존재라기보다는 토지분배 대장에 기록되는 물리적인 숫자나 수치로 환원되는 존재에 불과할 뿐이었다. “미세스가 관직을

25) 이호철, 「촌단당한 삶의 현장」, 앞의 글, 135면.

가진 자들이 이제는 국민의 중북이 아니라 무책임하고 자의적인 주인이 되어 폭군처럼 군림한다고 비난”²⁶⁾했던 부정적인 관료의 전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이들이 발호하는 북한의 관료주의 체제의 경직성에 대해 이호철은 ‘오직 권력에서 내려먹이는 작위적인 소리만 온 천지에 차 있었고, 체온이 담기지 않은 선전선동성 소음만이 왁자지껄했었던 세계, ‘끝내는 주객전도, 본래의 사람살이는 어디론가 증발해버리고 선전선동성 소음만이 온 천지를 뒤덮게 된 사회’, 한마디로 ‘제대로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닌 세계’(『남녘 사람 북녘 사람』, 329면)라는 아주 단호한 표현을 동원하여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5. 나오는 글

‘탈향에서 귀향까지’라는 명제가 극명하게 압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호철의 문학은 분단을 축으로 연결되는 피비우스의 띠와 같은 형국을 이루고 있다. 자신의 존재론적 조건과 실존적인 체험에 바탕한 이호철 문학의 그러한 형국은 다른 분단문학 작가들에 비해서도 돌출하다. 시종일관 분단을 원체험으로 동원하는 작가답게 이호철은 여러 자리에서 지적의 상거임에도 불구하고 19살의 나이에 일시적인 이동이겠지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선 고향 원산에 물경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부조리와 그로 인한 회한에 대해 적지 않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더불어 분단으로 인한 피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통일에 대한 현실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고민이나 통찰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살림 통일론」과 『남녘 사람 북녘 사람』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텍스트이다. 통일에 대한 현실적인 방법론에 대한 이

26) 홍일립, 앞의 책, 335면.

호철의 고민이나 통찰을 집약한 글이 「한살림 통일론」이고 그러한 한살림 통일론을 소설적으로 재현한 연작 소설집이 바로 『남녘 사람 북녘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호철의 문학 지형에서 그 두 텍스트가 지니는 비중이나 중요성, 그리고 그 두 텍스트의 상호 텍스트적 맥락의 연관성에 대해 주목한 연구는 이제까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글이 문제의식이 출발하는 지점이었다.

이호철의 통일론을 집약하고 있는 「한살림 통일론」의 핵심은 민족 동질성의 회복에 앞서 민족 동질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이다. 그 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이호철이 힘주어 강조하는 사항은 이념이나 체제의 차이를 따지거나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우선 자주 만나는 작업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이다. 그러한 만남이 축적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까지 막연한 짐작의 차원에서 생각해왔던 민족동질성을 확인하게 되고, 그러한 성과들이 통일로 가는 도정에서 활로를 개척하고 물꼬를 트는 데 의미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살림 통일론에서의 이러한 문제의식을 소설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남녘 사람 북녘 사람』에서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기능적인 장치로 선명한 이분법적 도식의 인물 배치를 동원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개인의 자유의지나 개성을 억압하거나 구속하는 형식이나 체제에 대해 생래적인 반감이나 거부감을 지니고 있었던 자유주의적인 기질이나 성향이 강했던 이호철이 통일과 관련하여 가장 경계해야 할 부정적인 대상으로 타자화하는 인물들은 박천옥이나 최상호 선생과 같은 유형이다. 부정적인 인물의 원형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 두 사람은 사회주의 체제 건설기의 북한 사회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던 유형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개성이나 자유의지가 거세되다시피 한 상태에서 선택적인 이념이나 상투적인 관념을 자동인형처럼 반복하는 인물들이다. 박천옥이나 최상호 선생과 같은 인물들의 부정적인 속성이나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갈승환 씨나 총대장, 그리고 풍용이 아저씨와 같은 인물들이 상황논리에 편승하거나 체제에 기생하여 발호했던 사회주의 체제 건설기나 한국전쟁기 북한 사회의 권위주의나 관료주의 체제의 분위기에 대해 이호철은 “온 나라의 방방곡곡이 낮선 ‘혁명’이라는 회오리에 휘말려 들었고, 그것은 달리 표현하면 바로 공포였다”²⁷⁾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통해 단호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 반면, 호의적인 서술 시각에 의해 긍정적인 대상으로 초점화되는 인물은 한국전쟁 직전에 월남한 전상동 선배에게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는 유형이다. 전상동 선배는 자신의 분명한 중심은 확고하게 유지하면서도 그것에 기계적으로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유연성을 발휘하는 개성과 자유의지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전상동 선배야말로 통일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호철이 가장 소중한 가치나 태도로 강조했던 ‘인간적 온기’, ‘사람살이의 본원적인 활달함과 자연스러움’, ‘인간 천성에 대한 이해’의 소유자로 인식되고 있다.

치밀한 논리나 정치한 방법론과는 대척적인 지점을 발신지로 하는 한 살림 통일론에서 많은 논자들로부터 이호철 문학을 관통하는 정체성의 표지로 거론되는 낭만주의와 천진난만성의 흔적을 발견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시종일관 반복강박의 수준에서 조건 없는 만남과 정분을 강조하는 그의 주장은 너무나도 소박 단순하며 느슨하여 하나의 담론으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체계나 밀도조차도 부족해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가 강조하는 본원적 민족 정서를 확인하는 실천인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각종 인적·물적 교류 사업이나 행사 또한 정치 논리와 연동되어 진행되는 점에서 정치 논리와 본원적 민족 정서를 배타적인 관계로 설정하는 이 담론이 가지는 취약점은 너무나도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그의 통일론은 해방 이후 월남하기까지 5년 간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서는 북

27) 이호철, 『촌단당한 삶의 현장』, 앞의 글, 148면.

한에서의 경험과 1998년과 2000년 두 번에 걸쳐 북한을 방문한 경험 등 남북한의 체제를 모두 경험한 ‘경험의 직접성’에서 우러나오는 무게와 깊이를 지닌 것이라는 점에서 무시할 수만은 없는 역설의 힘을 느끼게 한다. 더욱이 이 작품은 이호철의 분단소설 지형에서 기원을 형성하고 있는 「관문점」에서부터 징후적으로 제시된 이후 반복적인 변주의 양상을 보이면서 드러난 통일론의 문제의식을 보다 의식적인 차원에서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한 역설의 힘은 현실적인 근거를 지니고 있다는 말로 이 글을 매조지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자료편

이호철. 『남녘 사람 북녘 사람』. 프리미엄 북스, 1996.

이호철. 『소시민』외, 동아출판사, 1996.

이호철. 『남녘 사람 북녘 사람』. 민음사, 2002.

『이호철 문학선집』6,7, 국학자료원, 2001.

2. 국내외 논저

강진호. 『이호철』. 글누림, 2010.

김성보. 『북한의 역사1: 건국과 인민민주주의의 경험1945-1960』, 역사비평사, 2019.

신승엽. 「인물 탐구의 객관성과 민중성」. 『창작과 비평』. 1996.9. 281-290면.

이동근. 「이호철의 자전적 소설 연구“『남녘 사람 북녘 사람』을 중심으로」. 『동서인문학』 44.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12. 131-156면.

이호철. 『이호철 문학앨범』. 웅진출판, 1993.

이호철. 『문단골 사람들』. 프리미엄북스, 1997

이호철. 『이호철의 한 살림 통일론』. 정우사, 1999.

이호철. 『남·북한 반세기』. 이소북, 2003..

이호철. 『이호철의 쓴소리』. 우리교육, 2004.

홍일립. 『국가의 딜레마』. 사무사책방, 2021.

<Abstract>

The Theory 『Southerners and Northerners』
by Lee, Ho-chul
—a novel reproduction of ‘Unification Theory of
One Household’

Kong, Jong-goo

The literature by Lee, Ho-chul is shaped like a band of Mobius connecting to the axis of division. From beginning to end, as a writer who mobilizes the division as an original experience, Lee Ho-cheol also presented considerable concerns and insights on the realistic methodology for unification. In this context, 『The Unification of One Household』 and 『Southerners and Northerners』 are very important texts. This is because the writing that summarizes Lee Ho-chul's worries or insights on the realistic methodology of unification is 『The Unification of One Household』 and a series of novels that reproduced such a theory of unification in a novel way is 『Southerners and Northerners』.

In 『Southerners and Northerners』, which is a novel reproduction of ‘The Unification of One Household’, it mobilizes the placement of characters in a clear dichotomous schematic in order to effectively present the problem consciousness of the unification of one household. Regarding unification, the prototype of Lee Ho-chul's typification as the most negative object to be wary of is such type of Park Cheon-ok or Choi Sang-ho. The two were of the type that was easily found in North Korean society during the socialist construction period, and they are characters who repeat prior ideologies or conventional ideas like automatic dolls. On

the other hand, the person who is focused on a positive object by a favorable narrative perspective is a type of person who can find its original form in Jeon Sang-dong, a senior student who defected to South Korea just before the Korean War. This is because the senior, Jeon Sang-dong has a personality and free will that maintains his clear center but does not mechanically adhere to it.

Consistently, the Unification of One Household emphasizing unconditional meeting and segregation, is so simple and loose that even the minimum system or density required as a discourse seems to be insufficient. However, it has an unescapable power of paradox in that it has the weight and depth coming from "directness of experience".

Key words: ethnic homogeneity, priori ideology, a conventional idea, unification theory of one household, personality and free will, Korean war, division, The bureaucratic system

투 고 일: 2022년 7월 19일

심 사 일: 2022년 9월 14일

게재확정일: 2022년 9월 14일

수정마감일: 2022년 9월 22일